

직업지위점수를 활용한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

백원영¹⁾ · 이재성²⁾

요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I」을 활용하여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 졸업자의 개인 특성, 부모 직업, 대학 특성 등이 취업 여부뿐만 아니라 첫 일자리의 임금 및 직업지위 점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첫째, 부모 직업의 경우 첫 직장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녀의 직업지위 점수에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전문대학 졸업생의 경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전공별 임금 프리미엄은 의약, 공학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업지위 점수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졸업생의 표본을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일반대학 졸업생의 경우 의약계열의 임금 프리미엄만 존재하는 반면, 직업지위 점수는 교육, 공학, 자연계열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부모와 자녀의 직업 간에 세대 이전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공 분야에 따라 높은 임금이 일자리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따라 직업지위 점수가 임금 등과 함께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하는 하나의 변수로 고려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I. 서론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이론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대학에서의 교육이 원활한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로 인식된다. 특히 최근 노동시장은 기술의 발전, 소비패턴 변화, 서비스 부문에 대한 노동수요 증대 등 여러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산업사회에서 표준적으로 통용되던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형태들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연구에서 첫 일자리의 이행과 정과 관련된 성과인 임금, 정규직/비정규직, 또는 종사상 지위 등으로 일자리의 질을 대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는 사회학을 중심으로 특정한 교육 분야가 사회 계층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직업적 위신(occupational prestige), 일자리 미스매치, 고용 형태, 소득 등과 같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Katz-Gerro and Yaish, 2003; Van de Werfhorst, 2004; Shwed and Shavit, 2005). 이러한 연구들에서 직업지위를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보았을 때 기존에 임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2)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문 사회과학 분야 전공자의 경우 공학이나 경영학 등의 전공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지만 (Arcidiacono, 2004; Marini and Fan, 1997), 전공 분야가 직업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그 결과가 연구자나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Van de Werfhorst, 2004).

직업을 분류하는 것은 상당 부분 계층화 연구의 바탕을 이룬다(Grusky and van Rompaey, 1992). 이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직업이 사회적 계층의 주요 차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직업에 대한 정보로부터 지위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직업적 지위에 대한 시초는 국내의 한국표준직업분류와 같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자료를 개별 연구자의 선호도와 실질적인 연구 목적에 따라 관련성 있는 척도로 재코딩하여 활용된다. 특히 직업 변수가 세대 간 지위 세습에 관한 연구 등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수(socioeconomic index)나 직업위세점수 등으로 활용된다(Ganzeboom and Treiman, 1996; 방하남·김기현, 2001).

본 연구는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이러한 직업지위 점수를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임금이나 종사상 지위를 활용한 일자리의 질 등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지위 점수를 노동시장 성과의 한 변수로 활용할 경우 임금 등을 활용한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할 수 있으며, 결과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요인들이 직업지위 점수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갖는지 실증하고자 한다.

직업지위와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가구 배경과 자녀의 경제적 성취 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한다(Duncan, 1997; Bowles et al., 2009; Ziolo-Guest et al. 2009; Ermisch et. al, 2012). 이러한 연구들은 직업지위 등으로 측정한 가구 배경이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지적·비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의 투자가 자녀의 인적자본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지만(Becker and Tomes, 1986), 일부 연구에서는 학력이나 직업과 같은 전통적인 척도로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제시한다(Bowles and Gintis, 2002; Franzini and Raitano, 2009; Mazzona, 2014; Raitano and Vona, 2015). 또한 부모의 네트워크는 그들의 자녀들이 노동시장에서 더 나은 기회를 획득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자녀의 인적자본이 부족할 때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는 특히 두드러진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사례를 통해 분석한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에서 저능력(low ability) 자녀의 임금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낙하산 효과(parachute effect)가 있음을 실증한 바 있다(Checchi et al., 1999, Pezzilari, 2010, Raitano and Vona, 2015).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가구 배경과 개인의 직업지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던 기존의 연구를 개인 특성, 훈련 경험, 대학 전공 등 다양한 특성 변수로 확대하여 대졸자의 교육과 노동시장 이행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임금뿐만 아니라 직업지위 점수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성과를 실증함으로써 급속하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직업지위 점수가 노동시장 성과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때 보완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직업지위 점수를 활용한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 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 I」 1~12차연도(2004~2015년) 자료와 2020년도에 동일한 패널 3,150명을 대상으로 마지막 조사(12차연도) 이후의 학력 및 노동시장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추적조사한 자료를 연결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지위의 점수와 범주화를 위해 Ganzeboom and Treiman(1996)의 코드를 활용한다. 이들은 사회경제적 지위 점수(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al Status: ISEI) 및 계층화 범주(Erickson and Goldthorpe's class categories: EGP)를 1988년 국제표준직업분류의 3~4 자리 단위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사회경제적 지위 점수뿐만 아니라 직업지위 점수로 통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직업지위 점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문대학 또는 일반대학 졸업 이후 첫 일자리 직업의 고용직업분류(KECO)를 한국표준교육분류로 연계한 뒤 다시 국제표준직업분류로 분류하여 Ganzeboom and Treiman(1996)이 제시한 점수를 매칭하였다.

<표 1>은 Ganzeboom and Treiman(1996)에서 제시된 EGP 범주를 나타낸 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지위를 ISEI의 연속된 점수로 활용하고, 부모 직업의 경우 자영업자를 제외한 5계급으로 범주화하여 분석에 포함한다.

<표 1> 직업지위 분류 기준

		ISEI 평균	6계급
I	상위 전문직, 관리직, 대기업 경영자	68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
II	하위 전문직, 관리직, 상위 기술직, 소기업 경영자, 사무 감독직	58	
III	사무직 노동자	45	사무직 노동자
IVa	피고용인이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48	자영업자
IVb	피고용인이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	42	
V	하위 기술직, 육체 근로자 감독직	40	숙련 육체노동자
VI	숙련 육체 노동자	36	
VIIa	반숙련, 미숙련 육체 노동자(비농업 부문)	31	비숙련 육체 노동자
VIIb	농업 등 1차산업 노동자	18	농업 노동자
IVc	농민, 소지주, 1차산업 자영업자	26	

출처: Ganzeboom and Treiman(1996) p.214를 재구성함.

표본은 1차(2004)연도 중학교 3학년 2,000명, 고등학교 3학년 4,000명 중 12차(2015)연도 및 추적조사(2020)연도에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졸업자로 구성하였다. 임금과 직업지위 점수 결정 요인에 관한 분석에서는 졸업 후 첫 일자리를 가진 표본 중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표 2>는 직업지위를 범주화하여 각 범주의 기초통계를 제시한 것이다. 일반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표본 중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는 984명, 사무직 노동자는 436명, 숙련 노동자는 211명, 비숙련 노동자는 228명이다. 성별로는 사무직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대학 전공별로 살펴보면, 사무직 노동자 범주를 제외하고는 공학계열 전공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사무직 노동자에서는 경영·경제 전공자가 28%, 공학계열이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와 사무직 노동자에서 일반대학 졸업자의 비중이 각각 69%, 62%를 차지하는 반면,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범주에서는 전문대학 졸업자의 비중이 각각 60%, 63%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첫 일자리 성과와 관련된 변수들의 경우 첫 일자리 이행 기간의 경우 비숙련 노동자(18.1개월), 전문직 및 고용주(16.3개월), 사무직 노동자(16.3개월), 숙련 노동자(14.1개월)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임금의 경우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189.0만 원), 숙련 노동자(170.9만 원), 사무직 노동자(157.8만 원), 비숙련 노동자(154.1만 원)이다. 직업지위 점수(ISEI)의 경우 <표 2>에서 제시한 직업지위의 범주 순서에 따라 각각 59.5점, 43.7점, 35.6점, 30.5점 순으로 나타난다.

<표 2> 직업지위의 범주별 표본 특성

구분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	사무직 노동자	숙련 노동자	비숙련 노동자
인구학적 특성	성별(남성=1)	0.56 (0.50)	0.45 (0.50)	0.72 (0.45)	0.72 (0.45)
	연령(중학교 코호트=1)	0.40 (0.49)	0.33 (0.47)	0.38 (0.49)	0.35 (0.48)
부(모) 직업지위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	0.58 (0.49)	0.49 (0.50)	0.42 (0.49)	0.44 (0.50)
	사무직 노동자	0.05 (0.22)	0.06 (0.24)	0.03 (0.18)	0.04 (0.19)
	숙련 노동자	0.11 (0.32)	0.11 (0.31)	0.13 (0.34)	0.14 (0.35)
	비숙련 노동자	0.19 (0.39)	0.26 (0.44)	0.28 (0.45)	0.23 (0.42)
	농업 노동자	0.07 (0.25)	0.08 (0.28)	0.14 (0.35)	0.16 (0.37)
학력	대졸(일반대학 졸업=1)	0.69 (0.46)	0.62 (0.49)	0.40 (0.49)	0.37 (0.48)
대학 전공	인문계열	0.10 (0.30)	0.13 (0.34)	0.04 (0.19)	0.08 (0.27)
	경영·경제	0.11 (0.31)	0.28 (0.45)	0.03 (0.16)	0.17 (0.37)
	법	0.02 (0.12)	0.01 (0.11)	0.00 (0.06)	0.01 (0.11)

구분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	사무직 노동자	숙련 노동자	비숙련 노동자
사회과학	0.07 (0.26)	0.10 (0.31)	0.10 (0.30)	0.07 (0.25)
교육계열	0.08 (0.27)	0.05 (0.23)	0.01 (0.12)	0.02 (0.13)
공학계열	0.29 (0.45)	0.23 (0.42)	0.38 (0.49)	0.40 (0.49)
자연계열	0.10 (0.30)	0.08 (0.27)	0.14 (0.35)	0.09 (0.29)
의약계열	0.11 (0.31)	0.03 (0.16)	0.11 (0.32)	0.05 (0.22)
예체능계열	0.12 (0.33)	0.09 (0.28)	0.19 (0.39)	0.12 (0.32)
학업성취도	졸업 평점(100점 환산) 82.91 (10.34)	81.60 (10.10)	82.01 (10.23)	81.93 (10.84)
훈련 경험	취·창업 교육훈련(경험=1) 0.28 (0.45)	0.36 (0.48)	0.29 (0.45)	0.23 (0.42)
첫 일자리 성과	이행 기간(월) 16.57 (22.98)	16.31 (23.59)	14.13 (19.61)	18.09 (23.70)
	월평균 임금(만 원) 188.97 (101.90)	157.81 (72.65)	170.88 (84.99)	154.09 (68.25)
	직업지위 점수(ISEI) 59.50 (11.29)	43.71 (8.03)	35.58 (7.91)	30.53 (5.84)
N	984	436	211	228

주 : 개인의 직업지위 범주에서 농업 노동자 범주에 속하는 표본 수는 6명에 불과하여, 표에서 제시하지 않음.
출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 1차(2004)~12차(2012), 13차(2020)연도 자료.

III. 분석 결과

<표 2>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첫 일자리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로짓 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과이다. 종속변수는 임금근로자로 취업 여부에 관한 더미변수이며, 설명 변수는 개인 특성, 가구소득, 고등학교 시절의 성장지, 부(모) 직업지위의 범주, 대학 유형, 학업 성과, 교육훈련 경험 여부 등을 포함하였다.

추정 결과를 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다. 특히 여성은 상대적으로 전문대학 졸업 이후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KEEP I에서 일부 표본에 대해 추적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남성의 경우 군입대 등을 고려하면 노동시장 진입 표본이 많지 않은 것에 기인하였을 수 있다. 한편 가구소득 및 성장지, 부

(모) 직업지위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반대학 졸업생의 취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가구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범주에 속할 경우 1,000만 원 미만에 속할 경우보다 취업할 확률이 높다. 또한 부모의 직업이 농업 노동자인 경우에 비해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이거나 비숙련 노동자인 경우 취업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취업을 위한 창업 및 교육훈련 경험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생에서는 첫 일자리를 획득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반대학 졸업생에서는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 전공 분야가 첫 일자리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법학계열은 인문계열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다. 그리고 공학계열과 의약계열은 첫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졸업생의 표본을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전문대학 졸업생의 경우 사회과학, 교육, 의약계열에서 인문계열에 비해 취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일반대학 졸업생은 법, 사회과학, 교육계열에서 인문계열에 비해 취업할 확률이 낮았으나 공학 및 의약계열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졸업 후 첫 일자리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등 취업의 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표 3>과 <표 4>에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일자리 임금 및 직업지위 점수에 대한 결정요인을 회귀분석 하였다.

<표 3> 대졸자의 취업 결정요인

		전체	전문대학	일반대학
인구학적 특성	성별(남성=1)	-0.053* (0.028)	-0.106** (0.051)	-0.006 (0.035)
	연령(중학교 3학년 코호트=1)	-0.057* (0.030)	-0.101* (0.052)	-0.017 (0.039)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0.111 (0.124)	0.134 (0.106)	-0.287* (0.157)
	100~300만 원 미만	-0.108 (0.115)	0.088 (0.086)	-0.215 (0.142)
	300~500만 원 미만	-0.134 (0.114)	0.061 (0.088)	-0.249* (0.141)
	500~700만 원 미만	-0.131 (0.118)	- (0.118)	-0.241* (0.145)
	700~1,000만 원 미만	-0.111 (0.130)	- (0.130)	-0.273* (0.155)
성장지	특별시/광역시	-0.035 (0.033)	0.051 (0.050)	-0.079* (0.044)
	시 지역	-0.007 (0.033)	0.040 (0.050)	-0.044 (0.043)
부(모) 직업지위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	0.024 (0.043)	-0.077 (0.064)	0.099* (0.059)

		전체	전문대학	일반대학
	사무직 노동자	0.049 (0.065)	-0.056 (0.102)	0.133 (0.084)
	숙련 노동자	0.008 (0.050)	-0.020 (0.073)	0.055 (0.067)
	비숙련 노동자	0.029 (0.045)	-0.087 (0.064)	0.124** (0.062)
대학 유형	일반대학 졸업	-0.085*** (0.030)	-	-
대학 전공	경영·경제	0.034 (0.043)	0.116 (0.093)	0.009 (0.050)
	법	-0.218** (0.104)	-	-0.232** (0.106)
	사회과학	-0.022 (0.049)	0.172* (0.101)	-0.112* (0.057)
	교육계열	-0.046 (0.057)	0.237* (0.138)	-0.129** (0.066)
	공학계열	0.097** (0.042)	0.131 (0.087)	0.086* (0.049)
	자연계열	0.000 (0.047)	0.113 (0.103)	-0.046 (0.053)
	의약계열	0.182*** (0.058)	0.190** (0.095)	0.224** (0.087)
	예체능계열	0.042 (0.046)	0.138 (0.092)	0.004 (0.056)
	학업성과	졸업평점(100점 환산)	-0.001 (0.001)	0.002 (0.002)
훈련경험	교육훈련 참여	0.037 (0.024)	-0.056 (0.041)	0.071** (0.030)
N		1,890	626	1,238

주 : 1. 가구소득의 준거집단은 1,000만 원 이상, 성장지의 준거집단은 읍·면지역, 부(모) 직업지위의 준거집단은 농업 노동자, 대학 전공의 준거집단은 인문계열임.
 2. 졸업 연도, 대학 소재지 등은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3. 추정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임.
 4. 괄호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5. *** 1%, ** 5%, *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 1차(2004)~12차(2012), 13차(2020)연도 자료.

<표 4>와 <표 5>에서 종속변수인 임금과 직업지위 점수는 로그 값이고, 설명변수는 앞의 추정모형에 사용한 변수와 함께 첫 일자리로의 이행 기간 변수를 추가하였다. 임금 및 직업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 성별, 부모 직업, 대학 유형, 학업 성과, 훈련 경험의 효과를 살펴보면, 임금과 직업지위 결정요인 간에 유의하게 나타나는 변수들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정 결과를 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임금을 받지만,

직업지위 점수는 낮게 나타난다. 부모의 직업은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직업지위 점수에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부모 직업이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인 경우 농업 노동자에 비해 직업지위점수가 약 8.9% 높게 나타났고, 비숙련 노동자는 농업 노동자에 비해 약 농업 노동자인 경우에 비해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인 경우 개인의 직업지위 점수는 약 8.0% 높다. 일반대학 졸업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지위점수가 높았으나, 임금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전공분야의 임금 및 직업지위점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두 분석 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인문계열에 비해 사회과학, 교육, 공학, 의약계열 전공자의 임금 및 직업지위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4〉 대졸자의 임금 및 직업지위 결정요인

		임금	직업지위
인구학적 특성	성별(남성=1)	0.109*** (0.037)	-0.076*** (0.023)
	연령(중학교 3학년 코호트=1)	-0.115*** (0.039)	-0.030 (0.025)
부(모) 직업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	0.034 (0.051)	0.085*** (0.033)
	사무직 노동자	0.092 (0.076)	0.075 (0.050)
	숙련 노동자	-0.064 (0.058)	0.072* (0.038)
	비숙련 노동자	0.014 (0.052)	0.077** (0.034)
대학 유형	일반대학 졸업	0.036 (0.037)	0.142*** (0.024)
대학 전공	경영·경제	0.067 (0.057)	0.068* (0.036)
	법	0.036 (0.144)	0.030 (0.084)
	사회과학	0.105* (0.064)	0.081** (0.039)
	교육계열	0.140* (0.074)	0.149*** (0.046)
	공학계열	0.152*** (0.055)	0.135*** (0.034)
	자연계열	0.089 (0.062)	0.089** (0.038)
	의약계열	0.254*** (0.068)	0.165*** (0.043)

		임금	직업지위
	예체능계열	-0.006 (0.061)	0.040 (0.038)
학업성과	졸업평점(100점 환산)	-0.001 (0.001)	0.002* (0.001)
훈련경험	교육훈련 참여	-0.023 (0.030)	-0.001 (0.019)
첫 일자리 이행기간		0.004*** (0.001)	0.001** (0.000)
대학전공		Yes	Yes
졸업연도		Yes	Yes
N		1,037	1,225

주 : 1. 부(모) 직업지위의 준거집단은 농업 노동자임.
 2. 가구소득, 고등학교 시절 성장지, 대학 소재지, 졸업 연도 등은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3. 괄호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4. *** 1%, ** 5%, *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 1차(2004)~12차(2012), 13차(2020)연도 자료.

<표 5>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졸업자 표본을 나누어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취업 결정요인에 있어서 부모 직업이 일반대학 졸업생의 표본에서만 영향을 미치지만, 직업지위 점수에는 전문대학 졸업생의 표본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 이행 기간은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생 두 집단에서 모두 임금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직업지위 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공별 임금 및 직업지위 점수의 프리미엄은 전문대학 또는 일반대학 졸업생 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임금 및 직업지위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대학 졸업생의 경우 의약계열 전공자가 가장 높은 임금 프리미엄을 받으며, 이어서 공학, 자연, 사회과학, 교육, 예체능, 경영·경제 전공자가 인문학 전공자와 비교해 유의하게 높은 임금 프리미엄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도 대학 학과별 입학성적을 통제한 후에도 의약, 공학계열 전공자가 인문학 전공자에 비해 높은 임금 프리미엄을 받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이병희, 2004) 반면 직업지위의 경우 의약, 사회과학, 공학, 경영·경제를 제외하고는 인문학에 비해 다른 전공에서의 유의한 임금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대학 졸업생의 경우 임금과 직업지위 간 전공계열에서의 유의도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인문학과 비교해 의약계열 전공자의 임금이 높고 예체능계열 전공자의 임금이 낮게 나타나지만, 교육, 공학, 자연계열 전공자가 인문학 전공자보다 유의하게 직업지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높은 임금이 곧 좋은 직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며, 전공 분야에 따라 집중되는 직업 분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표 5〉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 졸업생의 임금 및 직업지위 결정요인

		전문대학		일반대학	
		임금	직업지위	임금	직업지위
인구학적 특성	성별(남성=1)	0.006 (0.063)	-0.047 (0.043)	0.126** (0.049)	-0.104*** (0.029)
	연령(중학교 3학년 코호트=1)	-0.038 (0.065)	0.004 (0.045)	-0.176*** (0.053)	-0.051 (0.032)
부(모)직업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	-0.001 (0.069)	0.090* (0.048)	0.045 (0.077)	0.075 (0.047)
	사무직 노동자	0.169 (0.116)	0.143* (0.080)	0.099 (0.107)	0.035 (0.067)
	숙련 노동자	-0.056 (0.079)	0.064 (0.056)	-0.083 (0.088)	0.058 (0.055)
	비숙련 노동자	0.012 (0.070)	0.105** (0.050)	-0.018 (0.081)	0.055 (0.049)
대학 전공	경영·경제	0.308** (0.127)	0.150* (0.081)	0.040 (0.068)	0.048 (0.041)
	법	0.639 (0.430)	-0.041 (0.313)	-0.032 (0.159)	0.023 (0.087)
	사회과학	0.411*** (0.134)	0.174** (0.085)	0.052 (0.078)	0.046 (0.046)
	교육계열	0.398** (0.161)	-0.005 (0.104)	0.102 (0.087)	0.199*** (0.052)
	공학계열	0.476*** (0.123)	0.160** (0.078)	0.105 (0.066)	0.144*** (0.039)
	자연계열	0.437*** (0.134)	0.077 (0.087)	0.036 (0.075)	0.105** (0.044)
	의약계열	0.491*** (0.127)	0.237*** (0.082)	0.301*** (0.105)	0.082 (0.060)
	예체능계열	0.391*** (0.126)	0.080 (0.081)	-0.127* (0.077)	0.022 (0.045)
학업성과	졸업평점(100점 환산)	0.000 (0.002)	-0.001 (0.001)	-0.002 (0.002)	0.003** (0.001)
훈련경험	교육훈련 참여	-0.066 (0.049)	-0.011 (0.033)	-0.003 (0.039)	0.012 (0.023)
첫 일자리 이행기간		0.004*** (0.001)	0.001 (0.001)	0.004*** (0.001)	0.001 (0.001)
전공 졸업연도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N		396	442	641	783

주 : 1. 부(모) 직업지위의 준거집단은 농업 노동자임.

2. 가구소득, 고등학교 시절 성장지, 대학 소재지, 졸업연도 등은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3. 괄호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4. *** 1%, ** 5%, *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 1차(2004)~12차(2012), 13차(2020)연도 자료.

VI.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 1~12차연도 및 2020년 추적조사 자료 통해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을 취업 여부뿐만 아니라 임금과 직업지위 점수를 활용하여 실증하였다. 분석 결과 임금과 직업지위 점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부모 직업의 경우 첫 직장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직업지위 점수(ISEI)에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직업을 6개 집단으로 범주화한 후 노동시장 성과를 직업지위 점수로 살펴보았을 때, 부모의 직업이 농업 노동자일 때 비해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 숙련 노동자, 비숙련 노동자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녀의 직업지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직업이 자녀의 소득보다는 직업지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와 자녀 간 직업지위의 세대 이전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효과는 전문대학 졸업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 배경의 영향이 특정 계층의 청년에 가중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전공별 임금 및 직업지위 점수의 프리미엄은 의약, 공학, 교육계열 순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전공별 임금 프리미엄은 일반대학 졸업자에게서는 의약계열을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으나 직업지위 점수에 대해서는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순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전문대학의 전공에 따른 임금 및 직업지위 점수에 대한 추정치 및 전공별 임금 프리미엄을 연구한 기존 연구 결과에서 의약, 공학, 사회과학 전공자의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보고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임금 및 취업 여부로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보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 학력이나 직업 등과 같은 가구 배경이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는 임금이나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지만, 여전히 자녀의 직업지위에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학 전공의 경우에도 의약, 공학 등의 전공에서는 임금과 직업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전공 분야에 따라 높은 임금이 일자리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졸업자의 개인 특성, 대학 특성, 부모 특성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임금 및 직업지위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모 직업이나 전공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한다면, 개인의 임금뿐만 아니라 직업지위와의 관련성에 관해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직업지위가 노동시장 성과를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직업지위 점수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 등의 지표와 비교 분석하는 것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향후의 과제로 남아 있다.

❖ 참고문헌 ❖

- Arcidiacono, P.(2004). Ability sorting and the returns to college major. *Journal of Econometrics*, 121(1-2), 343-375.
- Becker, G. S., & Tomes, N.(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 Part 2), S1-S39.
- Bowles, S., & Gintis, H.(2002). The inheritance of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6(3), 3-30.
- Bowles, S., Gintis, H., & Groves, M. O. (Eds.).(2009). Unequal chances: Family background and economic succes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ecchi, D.(2006). The economics of education: Human capital, family background and inequ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rmisch, J., Jäntti, M., Smeeding, T., & Wilson, J. A.(2012). Advantage in comparative perspective. Chap. 1 in From Parents to Childre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dvantage*, edited by John Ermisch, Markus Jantti, and Timothy M. Smeeding.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Duncan, G. J.(1997).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Duncan, GJ, Brooks-Gunn, J., and Klebanov, PK (1994). Economic depriv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5, 296-318.
- Franzini, M., & Raitano, M. (2009). Persistence of inequality in Europe: the role of family economic condition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Economics*, 23(3), 345-366.
- Ganzeboom, H. B., & Treiman, D. J. (1996). Internationally comparable measures of occupational status for the 1988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Social Science Research*, 25(3), 201-239.
- Grusky, D. B., & Van Rompaey, S. E. (1992). The vertical scaling of occupations: some cautionary comments and reflec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6), 1712-1728.
- Katz-Gerro, T., & Yaish, M. (2003). Higher education: is more better? Gender differences in labour market returns to tertiary education in Israel. *Oxford Review of Education*, 29(4), 571-592.
- Marini, M. M., & Fan, P. L. (1997). The gender gap in earnings at career ent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8-604.
- Mazzonna, F. (2014). The long-lasting effects of family background: A European cross-country comparison.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40, 25-42.
- Pellizzari, M. (2010). Do friends and relatives really help in getting a good job?. *ILR Review*, 63(3), 494-510.
- Raitano, M., & Vona, F. (2015).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the impact of family background on carrier paths of Italian males. Document de Travail OFCE, 5.
- Shwed, U., & Shavit, Y. (2006). Occupational and economic attainments of college and university graduates in Israel.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2(4), 431-442.
- Van de Werfhorst, H. G. (2004). Systems of educational specialization and labor market outcomes in

Norway, Australia, and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45(5), 315-335.

Ziol-Guest, K. M., Duncan, G. J., & Kalil, A. (2009). Early childhood poverty and adult body mass index.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9(3), 527-532.

방하남, 김기현(2001). 변화와 세습: 한국 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제35권 제3호, 1-30.

이병희(2004). 대학 전공의 노동시장 성과. *노동정책연구*, 제4권 제4호, 1-20.

❖ Abstract ❖

The Determinants of the College Graduate's Labor Market Outcomes

Won Young Baek(KRIVET), Jae-seong Lee(KEIS)

We demonstrated how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family background such as parents' jobs, and their majors in college or universities affect the 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al status(ISEI) as well as their employment. One of our results suggests that parents' job status does not affect their first job wage, but significantly affects graduates' ISEI. This result is strongly applicable to the group of college graduates. Second, the wage premium by college major was shown in order of medicine and engineering, which is similar to the ISEI. However, from the analysis of graduates' samples, the wage premium exists only in medicine while ISEI is high in education, engineering, and nature sciences. The above analysis suggests that there exists a generation transfer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s jobs, and high wages do not guarantee the quality of jobs depending on the area of their major. It also suggests that a score of ISEI can be considered a variable that measures labor market performance, wages, or decent jobs as the structure of the industry changes.

Key words: ISEI, school-to-work transition, family background, labor outcomes